

#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술잔의 표상(表象) : 작(爵)\*

구 혜 인\*\*

## 목 차

- I. 서론
- II. 작의 연원과 조형적 특성
- III. 길례용(吉禮用) 작: 유교식 정제(正祭)의 상징
- IV. 가례용(嘉禮用) 작: 기쁨과 효성의 확산
- V. 흉례용(凶禮用) 작: 애痛的 잔(盞)에서 공경의 작(爵)으로
- VI. 결론

**국문초록** | 이 글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술잔으로 사용된 작(爵)의 종류, 조형, 의미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의례용 술잔으로써 '작(爵)'이 내포한 속성을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 길례용 작(爵)은 다양한 국가제사 중 유교에서 공인된 제사인 정제에서 사용된 술잔으로,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에 기초한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유작(鑄爵)으로 제작해 진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유작을

---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을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로(NRF-2022S1A5C2A02092180), 2023년 11월 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 具惠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위촉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교 방문학자, 한국공예사 전공 human180@hanmail.net.

투고일: 2024. 5. 6. 심사완료일: 2024. 6. 25.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197>

대신해 제작된 분청사기작과 백자작에서도 유작의 조형적 요소들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의례용 작의 조형적 요소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점이 확인된다. 둘째, 흥례의 혼전에서 사용하던 흥례용 ‘작(爵)’은 부모때 종묘로 옮겨져 종묘제기의 작(爵)으로 변한다. 흥례용 작(爵)이 길례용 작(爵)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흥례와 길례의 연속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흥례절차에서 반우를 기점으로 거행되는 ‘제(祭)’에서부터 ‘작(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잔(盞)에서 작(爵)으로 교체되어, 작(爵)이란 작은 기물을 통해 점차 흥례가 길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무덤에 부장되는 명기인 백자작은 망자가 지나는 술잔이 되며, 망자는 부모 이후 조상신이 되면서 종묘 신실에 놓인 유작(鑪鑪)으로서 제주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례용 작(爵)은 왕실 혼례에서 왕세자가 세자비를 맞이하는 의식 중 왕의 당부를 듣는 자리인 입헌조계에서 ‘금작(金爵)’으로, 땅에 술을 붓고 왕세자가 마시는 술잔이다. 금작은 국초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모든 국가전례서 속 준작도설에 꾸준히 실려 사용된 작(爵)이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정조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연향용 작(爵)인 서작, 서배, 옥작은 『시경』의 시평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왕(왕세자)의 효성을 드러내는 술잔으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빈례에서도 작(爵)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사용된 다양한 술잔 중, 일부 국가의례에서만 작(爵)을 선별해 사용했으므로 작(爵)은 의례의 성격을 표상하는 술잔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작(爵), 조선, 국가의례, 술잔, 제사, 연향, 절주, 효

## I. 서론

조선시대 국가의례에서 의식절차는 대체로 각종 의례용 물질들을 사용하는 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례에서는 주인공을 위해 마련되는 의물들(神主·御冊·御寶·敎命 등), 의례 공간에 차려진 음식들과 온갖 그릇(祭器·宴享器 등), 의식을 장엄하는 각종 의장물(屏風·旗 등)은 의례 절차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의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물질문화적 측면에서 의례 과정에서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과 절차를 의미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여겨진다.

의례 절차 중 술이 담긴 잔을 주인공에게 올리는 절차는 의례 전 과정

중 핵심 단계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시대 국가의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술잔인 ‘작(爵)’을 연구하는 작업은 하나의 기종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의례의 핵심 절차인 술을 올리는 의식과 그 안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1)</sup>

작(爵)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주기(酒器)이다. 동아시아에서 작(爵)은 오랜 기원을 가진 술그릇으로, 중국 고대시대부터 예기(禮器)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예기, 일상기, 감상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작(爵)의 사용이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시대이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의례의 대표적인 술잔으로 사용되어, 한·중 역사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된 술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술잔’을 심도있게 다룬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sup>2)</sup>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연향에 사용된

- 
- 1) 이 연구의 주제어인 ‘작’이 글의 서술과정에서 형용사인 ‘작다’와 혼동될 수 있어 한자인 ‘爵’을 병기하도록 하겠다. 재질에 따른 금작, 은작, 동작, 옥작, 도작, 자작, 포작도 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한자와 병기하겠다.
  - 2) 김윤정, 「朝鮮初 酒器 造型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 葵花盞의造型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정희정,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이아름·이은주,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윤효정,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造型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기물 연구」, 『규장각』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이아름, 「19세기 궁중연향의 진작 과정과 기물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융합콘텐츠학 박사학위 논문, 2019;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최연우, 「조선시대 왕실 혼례용 쥘杯 연구」, 『국학연구』 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윤효정, 「조선전기 宜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각종 술잔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규화배(葵花盃), 혜호배(蟬蛻杯), 승배(罇杯), 옥배(玉杯), 치(觶), 야(匱)처럼 개별적인 기종 조형과 의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작(爵)’은 국가의례에 두루 사용된 술잔이면서, 각 의례마다 작을 사용하는 이유와 절차가 달랐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아직 ‘작(爵)’을 단독 주제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례에 술잔으로 사용된 작(爵)의 종류, 조형,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의례용 술잔으로써 ‘작(爵)’에 내포된 특별한 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sup>3)</sup>

## Ⅱ. 중국 작의 연원과 용도

작(爵)이라는 한자는 관직 그리고 술잔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sup>4)</sup>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작을 논하기 이전에, 그 원류가 된 중국 고대시대 술그릇으로 사용된 작의 연원, 의미, 조형 그리고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운용체계,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윤효정, 「조선시대 사의(射儀)용 의례기 뿔잔 치(觶)의 쓰임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김주하, 「14~16세기 고려~조선시대의 주구발[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등.

3) 본고의 주제인 ‘爵’과 같은 음을 가진 ‘酌’은 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따라 붓는다’는 동작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酌獻 또는 酌獻禮는 유교제사에서 제기에 술을 담아 신위 앞에 올리는 절차로써 다리가 세 개 달린 爵을 비롯해 다리가 달리지 않은 玉盞 등 여러 재질과 형태의 술잔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酌獻禮를 거행하는 장소로 文廟, 王陵, 宮園廟墓, 眞殿 등이 있었다. 『國朝寶鑑』; 『景慕宮儀軌』 1卷 圖說 酌獻禮設饌圖說; 『國譯 影幀摹寫都監儀軌』, 圖說, 一室~七室 酌獻禮所用 眞玉盞 부분 등 다수.

4) 『禮記』 「王制」王者之製祿爵, 公, 侯, 伯, 子, 男. 凡五等. 조선시대 문헌사료에서 관직을 의미하는 ‘작’의 용례로, 官爵, 爵位, 祿爵, 勳爵, 封爵, 奉爵, 爵號, 爵秩, 爵命, 爵名, 列爵, 復爵, 賞爵, 贈爵, 受爵, 授爵, 伯爵, 侯爵 등이 있다. 또 술잔으로써 ‘작’을 사용한 용례로 上爵, 主爵, 一爵, 二爵, 三爵, 九爵, 進爵, 獻爵, 爵洗, 進爵, 進爵位 등이 있다.

중국에서 작(爵)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조형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도 의례의 중요한 술그릇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작(爵)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의례기용 ‘작(爵)’의 조형적 연원인 중국 작(爵)을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 작(爵)에 대한 이해는 조선시대 작(爵)의 사용문화의 보편적 성격과 독자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비교사례가 될 수 있다.

## 1. 중국 작의 연원과 조형

중국 신석기시대 대문구(大汶口)문화와 용산(龍山)문화 유적에서 저화도로 구운 도기 재질의 예기(禮器)인 정(鼎)·두(豆)·호(壺)·고족배(高足杯)·준(尊) 등이 제작되는 가운데, 세 발이 달린 정(鼎)이 출토되었다.<sup>5)</sup> 이처럼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삼족기(三足器)가 출현하였으나 이때까지 ‘작(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종은 제작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초기의 작(爵)이 확인된 이른 시기의 유적은 하대(夏代) 문화층인 이리두(二里頭)의 1호 제사유적이다. 이 곳에서 옥도(玉刀), 녹송석(綠松石), 복골(卜骨)과 함께 유정문동작(乳釘紋銅爵)로 불리는 청동작(靑銅爵)이 출토되었다(도1). 이리두 출토 청동작은 전형적인 형태인 삼족과 곡선형의 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가 작은 거푸집을 사용해서 주조하는 방식[范鑄]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 제작된 초기 작(爵)은 두께가 얇고, 아직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중국 고대 청동 예기는 도철문과 뇌문 등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되었으나,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제작기술의 한계상 청동기에 문양을 장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 후기부터 장식기법과 주조기술의 발달하여 청동제 예기의 기형과

5) 朱廣宇, 「論中國古代禮器與祭器發展中藝術設計思想的轉變」, 『藝術百家』, 東南大學藝術學院, 2006, 134쪽.

문양이 다양해지면서 작에도 문양이 장식되었다.<sup>6)</sup> 더불어 하대~상대기간 동안 작(爵)의 특징적인 조형적 요소, 즉 두 개의 기둥이 잔 가장자리에 장식되었고, 다리와 기둥이 달린 작의 형태는 현재 갑골문자로도 남아있다. 이처럼 중국 선사시대부터 등장한 작(爵)은 그 연원이 오래된 만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작(爵)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우선 협의적 개념의 작(爵)은 2가지 유형(협의-1유형, 협의-2유형)으로 나뉜다. 협의-1유형은 현재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작(爵)으로, 세 개의 다리 위에 잔이 올려져 있고 잔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작은 기둥(柱)이 달린 유형이다(도2). 작(爵)의 동체부분의 양 쪽에 술을 따르는 출수부[流]와 뾰족한 꼬리 모양[尾]이 있다. 잔 부분 양쪽이 길쭉하게 모아진 모습이 참새[雀]를 닮았다고 하여 이 특징을 가리켜 작(爵)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다. 잔의 아래 쪽에는 세 개의 가는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형태로 잔을 떠받치고 있다.<sup>7)</sup> 협의-2유형은 뒤집은 반구형의 잔(盞) 위에 새 모양을 올리고, 새의 등에 잔을 다시 올린 중층적 형태로 작배부잔(雀背負盞)으로도 불린다. 협의-2유형은 술을 담는 잔 아래에 조각한 새 형상을 연결한 유형이다. 송대(宋代) 진상도(陳祥道, 1053~1093)의 『예서』, 섭송의(聶崇義, 北宋人)의 『삼례도집주』, 진원정(陳元靚, 南宋人)의 『사림광기』 등에 협의-2유형이 실렸고, 유물로도 현전하고 있다(도3).<sup>8)</sup> 상대부터 새 모습을 조각한 협의-2유형은 약화되고 협의-1유형이 작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9)</sup>

이처럼 협의의 작(爵)이 조형적 특성을 강조한 용어라면, 광의적 의미의

6) 朱廣宇, 위의 논문(2006), 134쪽.

7) 작과 비슷한 기형으로 罍라는 기종도 있다. 작과의 차이점은 참새 부리모양의 류와 미가 없고 손잡이와 기둥의 위치도 다르다.

8) 陳祥道, 『禮書』; 聶崇義 『三禮圖集注』; 陳元靚 『事林廣記』, 『纂圖互注周禮』.

9) 이 외에도 새 모양을 음각해 장식한 작, 손잡이가 달린 국자모양의 작 등이 존재한다. 吳曉筠, 「爵與雀——從本院新入藏西周斗形爵談起」, 『故宮文物月刊』 450, 故宮博物院, 2020.

작(爵)은 술잔이라는 용도에 초점을 두어 모든 형태의 술잔을 범칭(汎稱)하는 용어를 가리킨다. 광의적 개념의 작은 조형적 특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니라 ‘작(爵)은 예기(禮器)다’라는 인식 속에서 귀한 술잔을 작(爵)으로 통칭하는 문화에 의해 파생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제(天祭)에 사용하는 포작(匏爵)은 조롱박으로 만든 술잔으로 새의 형태와 무관하다. 포작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조롱박을 반으로 잘라 높은 다리를 갖춘 접시 위에 올린 모양도 있고, 조롱박잔을 세 개의 다리를 갖춘 받침 위에 올려놓은 모양도 있다(도4, 도6). 더불어 ‘술잔을 올린다’라는 의미의 헌작(獻爵), 진작(進爵)은 협의적 개념의 ‘작’뿐만 아니라 ‘술이 담긴 잔’을 올린다는 광의적 의미로도 통용된다.<sup>10)</sup> 이처럼 작은 그 기원이 오래된 만큼 형태, 재질, 문양이 다양했고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중국의 작(爵)은 조선시대 작의 개념과 조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조선 국가의례용 작으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협의-1유형이다. 현재 금속기와 도자기로 제작된 협의-1유형의 작(爵)이 상당수 전세 및 출토되고 있다. 유물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동안 작은 끊임없이 조형적 변화를 거쳤으나 변하지 않는 조형적 특징이 있다. 즉 세 개의 다리, 적은 용량의 술을 담는 크기가 작은 잔 그리고 잔 가장자리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으로, 이와 같은 조형적 특징들은 협의-1유형 작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협의-1유형 작은 청동기 시대 이래 꾸준히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주로 제사를 위한 예기로 쓰였고, 이 외에도 연향이나 일상생활 속 술잔 또는 감상기물로도 사용되어 많은 종류의 술잔들 중에서 특별하고 귀한 기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작’은 왜 특별하고 귀한 술잔으로써 인식되었던 것일까? 주된 이유는 다른 술잔들에 비해 술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이다. 유가

10) 『英祖實錄』, 英祖41年(1765) 10月 4日 丙午. ‘…銀盞을 쓰고 賜盞은 砂盞을 쓰되 廚院에서 취하여 쓰며…’

경전인 『예기』에서는 ‘종묘의 제사에서 존귀한 자는 한되들이 작(爵)으로 헌작하고, 비천한 자는 다섯 되들이 산(散)으로 헌작한다. 존귀한 자는 석되들이 치(觶)로 드리고, 비천한 자는 너 되들이 각(角)으로 드린다.’라고 하였다.<sup>11)</sup> 작(爵), 산, 치, 각은 모두 예기에 속하지만, 술잔의 크고 작음으로써 그 위계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즉 술잔은 용량이 적을수록 더욱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왜 술이 적게 담기는 작(爵)을 귀하게 여겼을까? 『예기정의』에서는 작(爵)을 고(觚), 치(觶), 각(角), 산(散)과 비교하였다. ‘술 한 되를 잔을 작(爵)이라 하니, 작(爵)은 다하여 만족하는 것이니라. 술 두 되들이 잔을 고(觚)라고 하니, 고(觚)는 적음이니 술을 마땅히 아주 조금 마셔야 하니라. 술 서 되들이 잔은 치(觶)라고 하니, 술마심은 마땅히 스스로 알맞게 해야 하니라. 술 너 되들이 잔은 각(角)이라 하니, 각(角)은 들이받음[觸]이니 능히 스스로 알맞게 하지 못하면 지나침을 죄가 닥쳐오다는 것이니라. 술 닷 되들이 잔은 산(散)이라 하니, 산(散)은 비난받음이니 스스로 한정해 마시지 않으면 남에게 비난받게 되니라. (술잔을) 총괄한 이름이 작(爵)이고, 그 술이 채워진 것을 상(觴)이라 하니, 상(觴)은 보내는 술이라.(후략)’라고 하였다.<sup>12)</sup>

문맥상으로 보면 작(爵)은 가장 작은 술잔인데도 불구하고 ‘다하여 만족한 대[盡也足也]’고 여기고, 역으로 큰 술잔인 고와 치는 ‘적다, 알맞다’라며 잔의 크기와 술의 용량을 반대로 설명하였다. 즉 술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잔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술을 절제하고 알맞게 마셔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를 강조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술잔 중에서 크기가

11) 『禮記』「禮器」‘宗廟之祭 貴者獻以爵 賤者獻以散 尊者舉觶 卑者舉角’.

12) 『禮記正義』卷二十三·禮器第十, 鄭玄注, 孔穎達疏 ‘正義曰, 一升曰爵, 二升曰觚, 三升曰觶, 四升曰角, 五升曰散者, 皆『韓詩說文』. 按『異義』今『韓詩說』‘一升曰爵, 爵, 盡也, 足也. 二升曰觚, 觚, 寡也, 飲當寡少. 三升曰觶, 觶, 適也, 飲當自適也. 四升曰角, 角, 觸也, 不能自適, 觸罪過也. 五升曰散, 散, 訕也, 飲不自節, 爲人謗訕. 總名曰爵, 其實曰觴. 觴者, 餉也. …’ 국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 사이트를 참고함.



가장 작은 작(爵)을 가장 귀하고 넉넉하다고 칭송받음으로써, 술잔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爵)이 술잔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되었다고 해석된다.

작의 가장자리에 달린 두 개의 기둥도 절주(節酒)를 돕는 역할을 한다. 주(柱)는 작(爵), 가(罍) 등 일부 주기(酒器)에 달린 독특한 장식으로 잔부분의 가장자리에 올려진 2개의 기둥이다. 술마시기에 거추장스러운 기둥이 장식된 것은 ‘술의 절제’와 관련있다. 『시경』에서는 “**윗부분에 있는 두 기둥은 마시기를 다하지 않는 뜻을 취한다.**”라고 하였다.<sup>13)</sup> 즉 술을 마실 때 잔을 기울이다가 어느 각도에 이르면 기둥이 얼굴에 닿아 더 이상 기울일 수 없어 스스로 지나친 음주를 경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sup>14)</sup>

이처럼 작(爵)의 형태, 즉 세 개의 다리, 적은 용량의 잔, 그리고 잔 위에 달린 두 개의 기둥은 작(爵)의 필수적인 조형적 요소로 유지되었다. 또 작(爵)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은 청동기 시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어져, 중국의 국가의례에서 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근원이 되었다.



도1 청동작[乳釘紋銅爵],  
이리두유적, 하대, 중국  
낙양박물관



도2 청동작[父戊舟爵],  
상대후기, 고23cm, 중  
국고궁박물관



도3 爵, 禮器局  
『新定三禮圖』

13) 『詩經』 「禮器圖說」 ‘飲器, 受一升. 上兩柱, 取飲不盡之義, 戒其過也. : 『國朝五禮儀序列』 「古禮」 祭器圖說 爵.

14) 작에 달린 두 개의 기둥이 실제로 절주의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2. 중국 작의 용도와 특징

중국의 『설문』에는 작(爵)을 예기(禮器)라고 하였다.<sup>15)</sup> 이 절에서는 중국에서 작(爵)이 예기로써 사용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작(爵)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의례는 제례이다. 하·상·주 시대부터 청동작(靑銅爵)을 특수한 제기로 제작해 사용하였고, 한·당대에는 칠기와 도자기 제작기술이 발달하고 제기의 조형이 일상 기종의 조형과 비슷해지면서 작(爵)의 제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당대(唐代) 무덤에 여전히 작(爵)을 도자기나 목기로 제작해 부장한 것으로 보아 작(爵)을 예기로써 인식하는 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작(爵)이 의례의 중요한 기물로 다시 부상한 시기는 송대 휘종대(徽宗代)로, 의례개혁을 통해 고대 예제를 복원하려는 정책 속에서 제사에 작(爵)을 다시 사용했다. 더불어 삼대(三代)의 청동기를 수집·방고·감상하는 문화 속에 고대 다양한 조형의 작(爵)을 『신성삼례도』, 『선화박고도』, 『찬도호주주례』 등에 수록했다.<sup>16)</sup> 이처럼 작(爵)을 의례용 예기로써 사용하고 동시에 완상 기물로써 수집하는 문화가 송대부터 발현했고, 송대 이후로도 지배층과 문인문화 속에서 이어졌다.

원대에는 청화안료로 장식한 백자작(白磁爵)이 새롭게 제작되었다(도5).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재질과 장식의 수준으로 보아 일상용이 아닌 국가 의례용 작(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명대의 『명집례』에는 제천례인 환구(圜丘)제사에 쓰이는 제기로 포작(匏爵)이 실리고 종묘의 제기로 동작(銅爵)이 실렸다(도6, 도7).<sup>17)</sup> 제례의 성격에 맞게 작(爵)의 재질을 구별하여 썼던 것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높은 위계의 제사인 천지(天地)제사에 조롱박[匏] 또는 흙[陶]으로 만든 작을 사용한 것은 자연의 본성과 질박한 것을 숭상한다는 뜻을 보여준다는 인식이 명대에도 유효했음

15) 『說文』 ‘爵，禮器也。象爵之形，中有鬯酒。又，持之也。所以飲器象爵者，取其鳴節足足也.’

16) 『新定三禮圖』, 『宣和博古圖』, 『纂圖互注周禮』.

17) 『明集禮』 古禮二 祀天 匏爵; 『明集禮』 古禮七 宗廟 爵.

을 알 수 있다.<sup>18)</sup> 또 명대에도 원대처럼 백자 작(爵) 위에 청화안료로 용문양을 장식한 작(爵)이 수 점 현전하여 백자로 만든 작(爵)의 장식이 원대부터 명대에 걸쳐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명 13릉(陵)이나 민간묘의 부장품으로 금작(金爵)이나 명기(明器)에 포함된 도작(陶爵)이 제작되기도 하여 작의 용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도 8, 도9).

청대 국가제사에서는 명대 제사제도도의 바탕 위에 작(爵)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전개되었다. 즉 기존의 포작(匏爵)과 동작(銅爵) 외에 제사의 성격에 따라 옥작(玉爵)·금작(金爵)·은작(銀爵)·동작(銅爵)·도작(陶爵, 또는 磁爵)을 구분해 사용했다. 『황조예기도식』에 근거하여 청대 국가제사에 사용된 작의 사용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첨부표).

우선, 자연신에게 지내는 제사에는 포작(匏爵), 옥작(玉爵), 도작(陶爵)을 사용했다. 가장 높은 제향공간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의 정위(正位)와 배위(配位)를 비롯해 사직단(社稷壇)과 지단(地壇)의 정위와 배위에 모두 조롱박으로 제작한 포작(匏爵)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천단 중 종위(從位)에는 파란색 단색 유약을 입힌 백자작[靑釉陶爵]을, 지단 중 종위에는 노란색 유약을 입힌 백자작[黃釉陶爵](도10)을, 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일단(朝日壇)에는 붉은색 유약을 입힌 백자작[紅釉陶爵]을, 달에게 제사를 지내는 석월단정위(夕月壇正位)에는 월백색 유약을 입힌 백자작[月白釉陶爵]을, 천신단(天神壇)에는 흰색 유약을 입힌 백자작[白釉陶爵]을 썼다(첨부표, 도4).<sup>19)</sup> 즉 백자

18) 전거는 『禮記』와 『杜氏通典』으로, ‘주나라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에, 술 담는 尊과 제물 담는 그릇에 있어서, 기물은 瓦(토)로 하고, 爵은 匏(호박)로 하고, 또 櫛(빗)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 세종대에도 원단제사에서 위 기록을 근거로 匏爵의 사용을 건의하였다. 『世宗實錄』卷22, 世宗5年 10月 27日 甲戌.

19) 『皇朝禮器圖式』. 청대 제사에 사용된 單色釉 磁爵에 대한 논고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王光堯, 「清代瓷質祭禮器略論」, 『古代陶瓷』第2期, 卷第106期, 故宮博物院院刊,

재질의 작(爵)을 쓰되 제사 대상의 성격과 위계에 맞춰 작(爵)의 유약색을 청(靑)·황(黃)·홍(紅)·백색(白色)으로 구분해 시유(施釉)한 것이다.

한편 인귀(人鬼)인 조상신이나 문묘(文廟)에 배향된 유자(儒者)에게 제향을 지낼 때에는 옥작(玉爵), 도작(陶爵), 금작(金爵), 동작(銅爵)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태묘의 정전과 후전에는 옥작(玉爵)을 사용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도작(陶爵)을 사용했다. 또 봉선전(奉先殿)에는 금작(金爵)을 사용하고, 문묘 정위에는 동작(爵)을 사용하였다. 제사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의 재질과 색을 다양하게 구분한 것은 청대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대 독특한 작(爵) 사용 문화가 형성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작(爵)은 생사의 축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릴 때, 손님을 맞이하는 빈례에서 술을 올릴 때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도 작(爵)을 사용하고 감상한 사실이 명·청대 회화자료에서 확인된다. 현재 중국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재질로 청동작(靑金爵), 옥작(玉爵), 금작(金爵), 은작(銀爵), 동작(銅爵), 도작(爵) 등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중국 작(爵)의 다양한 조형, 재질, 장식, 용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작(爵)의 제작과 사용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시대별로 중국왕조의 흥망성쇠와 유교의 부침 과정 속에 작(爵)을 사용하는 문화가 명·청대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한 사실과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면 흥미롭다. 즉 조선은 단일한 왕조로서 500년 가까이 운영되었고 건국초부터 유교의례를 꾸준히 충실하게 실천하였고, 중국과 다른 조선식 유교문화 속에서 독특한 작(爵) 문화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03, 70-79쪽; 구혜인, 앞의 논문(2019), 2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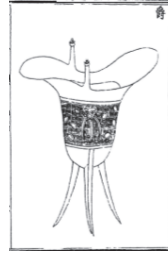
도4  
천단정위포작(天壇正位匏爵)과  
점(沾), 청대  
광서(光緒)  
년간, 북경시천단  
공원관리처



도5  
백자남유오조룡문작(白磁藍釉五爪龍文爵),  
원대, 고15.6cm  
영국박물관



도6  
포작(匏爵)과  
점(沾),  
천단정위(天壇正位), 『명집례』  
권2 36면,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도7  
작(爵), 종묘제기,  
『명집례』 권7  
9면,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도8  
‘萬曆年制金爵重五兩一錢七分’명문이  
있는 ‘금작(金爵)과  
금탁(金托)’, 명 13릉  
출토, 중국 명  
13릉박물관



도9  
삼채도작명기(三彩陶爵明器) 소장처 유물명:  
三彩供物台および供物) 중  
파란색 원부분, 탁자 높이  
11.7cm, 명, 일본  
Mayuyama & Co  
繭山龍泉堂



도10  
백자황유작(白磁黃釉爵), 고 13.4cm, 청,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 Ⅲ. 길례용(吉禮用) 작: 유교식 정제(正祭)의 상징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작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길례용 작(爵)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국가제사는 정제(正祭)와 속제(俗祭)로 구분된다. 정제는 유교경전에 실린 유교식 제사로 반드시 제물로 희생(犧牲)을 올린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제에서 모시는 제사의 대상이나 제사를 거행하는 주체의 고하(高下)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위계지어 구분했다.<sup>20)</sup> 이 장에서는 정제에서 작(爵)이 사용되는 제사의 종류와 진설 및 사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길례용 작(爵)의 종류와 조형을 분석하겠다.

#### 1. 길례용 작(鑪爵)의 사용체계와 유작(鑪爵)

국내 사료에서 국가제사에서 작(爵)을 제기로써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로 확인된다. 『고려사』 길례조를 통해 대사, 중사, 소사에 속하는 제사들에서 신위당 작을 세 개 또는 한 개씩 진설한 사실을 알 수 있다(표1).<sup>21)</sup>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도 정제용 술잔으로써 작(爵)을 사용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작(爵)을 올리는 횟수가 3번인 삼헌(三獻)과 1번인 단헌(單獻)으로 나뉘었다. 신위 하나당 3개의 작(爵)을 차례로 올리는 삼헌은 대사(大祀)나

20) 이에 비해 속제는 유교경전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관습이나 人情상 지내는 제사로 油蜜果 등의 일상음식을 올리고 잔, 대접 등 일상 기종을 제기로 사용한다. 이옥, 「조선시대 왕실 제사와 제물의 상징: 혈식(血食) 소식(素食) 상식(常食)의 이념」, 『종교문화비평』 20(2011), 226~236쪽.

21) 『高麗史』卷69 志 卷第14 禮2 古禮大祀 太廟 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高麗史』卷61 志 卷第15 禮3 古禮大祀 太廟 太廟四孟月及臘親享儀: 有司攝事儀; 『高麗史』卷61 志 卷第15 禮3 古禮大祀 別廟 別廟享 陳設.

일부 중사(中祀)에서 행해졌다(표2). 즉 대사인 사직정위, 종묘사시급납, 종묘사시급납, 중사인 풍운뇌우, 친향선농급배위, 영성, 독제, 여제성황이 있고, 주현제로 주현사직, 주현사시급납, 주현석전정배위, 주현포제가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작(爵)을 올릴 때 각각의 작(爵)에 다른 종류의 술을 담았다. 첫번째 작인 초헌용 작(爵)에는 예제(醴齊)를 담고, 아헌용 작에는 양제(盎齊)를 담고, 종헌용 작에는 청주(淸酒)를 담았다. 하나의 신위 하나당 한 개의 작(爵)을 올리는 단헌은 사직정배위기고, 칠사, 풍운뇌우, 우사, 기우, 복고망기악해독산천, 석전종향, 작헌문선왕, 문선왕삭망, 영제, 성황발고 등 일부 중사와 소사에서 주로 행해졌다. 앞에서 열거한 제사는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분석한 조선전기의 상황이며, 조선후기에는 제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작(爵)을 사용하는 제사도 늘어났다.

조선시대 정제에서 작(爵)은 대사부터 소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제기였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제 중 규모가 작고 격식이 낮은 제사인 소사의 경우 보(簋), 궤(簋), 형(鉶), 등(登)과 같은 제기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변(簋), 두(豆), 작(爵)과 같은 제기는 반드시 단 한 개라도 진설했으므로 길례 정제에서 제주를 담는 작(爵)이 기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2)</sup>

다음으로 정제를 대표하는 종묘제향의 절차에서 작(爵)이 사용되는 순서를 살펴보겠다. 종묘제향의 순서는 봉행준비-취위(就位)-신관례(晨裸禮)-삼상향(三上香)-관지(灌地)-헌폐(獻幣)-천조례(薦俎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음복례(飲福禮)-철변두(撤籩豆)-망료례(望燎禮)로 진행된다. 절차 중 첫 작(爵)을 올리는 초헌례는 희생 올리는 천조례 다음에 오고, 초헌례-아헌례-종헌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삼헌을 마치면 초헌관이 술이 든 작(爵)을 받아 음복하는 의례가 행해졌다.<sup>23)</sup> 종묘제향에서

22) 제사의 규모와 격식, 등급 등에 따라 세 번 술잔을 올리거나 한 번만 올리기도 하였다.

23) 奉行準備는 散齋 2일, 致齋 1일의 재계 시행과 제례의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취위는 각자 제자리에 서는 것, 신관례는 신을 맞이하는 강신례, 삼상향은 향을 피워 하늘의

희생을 올리는 천조례와 술을 올리는 삼헌은 종묘제향에서 핵심을 이루는 두 개의 의식으로, 종묘제향에서 희생을 올리는 조(俎)와 술을 담는 작(爵)은 제례절차의 중심에 사용되는 중요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길례 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작(爵)의 또 다른 특징은 신위(神位)의 수의 개수에 비례하는 성격을 가진 제기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묘에서 신주 2개(왕과 원비)가 모셔진 신실의 제상에는 한 신주당 작(爵)이 3개씩 진설되어 총 6개가 진설된다. 만약 신주가 3개 또는 4개(왕, 원비, 계비)로 늘어나면 작(爵)의 개수도 9개, 12개로 증가하게 된다. 변과 두의 경우 신주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개수로 진설하지만 작(爵)은 신주 수에 영향을 받아 개수가 변하는 제기로, 조상신 한 분마다 술잔을 개별적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종묘, 영녕전 제향처럼 여러 신위를 모시는 제향에서는 신실마다 작(爵)의 개수가 변화하지만, 신위의 수가 변하지 않는 제향에서는 작(爵)의 개수가 고정되었다.

표 1 고려시대 국가제사별 작의 재질과 진설개수  
(『고려사』, 신위 하나에 해당하는 작의 개수)

종류	재질	제사	개수
대사	匏爵	圜丘 親祀儀, 社稷祭	3
	玉爵	太廟 祫親享儀, 太廟 有司攝事儀, 太廟四孟月及臘親享儀, 太廟四孟月及臘享儀 有司攝事儀, 別廟享	3
	木爵	太廟 祫親享儀七祀儀, 太廟 有司攝事儀七祀儀, 太廟四孟月及	1

영혼을 강림하도록 하는 의식, 관지는 지하에 계시는 채백을 인도하는 의식, 현폐는 폐백을 올리는 의식, 천조례는 희생을 올린 조를 바치는 의식, 초헌례는 신위에 첫 번째 작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는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는 마지막 작을 올리는 의식, 음복례는 제사에 쓰인 술이 든 작을 받들어 마시고 고기와 함께 먹으며 복을 받는 의식, 철번두는 변과 두를 거두는 의식, 망료례는 축문과 폐백을 태우고 땅에 묻는 의식이다.



		臘親享儀七祀儀, 太廟四孟月及臘享儀七祀儀, 別廟享 配享功臣	
중사	木爵	籍田親享儀, 先蠶享儀 同先農攝事儀	3
	鍤爵	文宣王廟 2月 8月 丁日 釋奠儀	3
소사	木爵	州縣 文宣王廟 釋奠儀	3
	鍤爵	文宣王廟 視學 獻酌儀	1

표 2 조선시대 국가제사별 작의 재질과 진설개수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 찬실도, 신위 하나에 해당하는 작의 개수)

종류	재질	제사	변	두	보	궤	형	등	작	조
대사		社稷正位 (配位同)	12	12	2	2	3	-	3	6
		宗廟四時及蠟(永禧殿春秋同)	12	12	2	2	3	3	3	6
중사	鍤爵	親享先農及配位	10	10	2	2	3	3	3	6
		風雲雷雨	10	10	2	2	3	3	3	2
		靈星,老人星·名山大川·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禡祭	8	8	2	2	-	-	3	1
		州縣釋奠正配位	8	8	2	2	-	-	3	2
		蠡祭	8	8	2	2	-	-	3	2
		厲祭城隍 (州縣同)	4	4	2	2	1	-	3	2
		州縣社稷	4	4	2	2	-	-	3	1
		州縣醺祭	4	4	2	2	-	-	3	-
		宗廟俗節·朔望	2	2	2	2	-	-	1	1
		七祀	2	2	1	1	-	-	1	-
		社稷正配位祈告 (報祀同)	2	2	2	2	-	-	1	1
		釋奠從享 (州縣同)	2	2	1	1	-	-	1	1
소사		風雲雷雨·雩祀·雩祀	1	1	1	1	-	-	1	1
		北郊望祈嶽海濱山川	1	1	1	1	-	-	1	1
		酌獻文宣王 (配位及從享同)	1	1	-	-	-	-	1	-
		文宣王朔望	1	1	1	1	-	-	1	-
		禡祭	1	1	1	1	-	-	1	1
		城隍發告祭 (州縣同)	1	1	-	-	-	-	1	-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작(爵)의 재질이다. 조선시대 작의 재질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작의 재질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 길례조에 「길례」에 표주박으로 만든 포작(匏爵), 옥으로 제작한 옥작(玉爵), 나무로 제작한 목작(木爵)이 기록되어 있다(표1).

우선 고려시대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는 대사인 환구제와 사직제에서 포작(匏爵)을 사용했다.<sup>24)</sup> 포작(匏爵)은 조롱박으로 만든 술잔으로 자연의 질박한 속성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에서도 천지 제사에 포작을 사용하고, 종묘[太廟]의 체협친향(禘祫親享)과 섭향(攝享), 사맹월급납친향(四孟月及臘親享)과 섭향에 옥작(玉爵)을 올렸다. 더불어 종묘제사에서 칠사(七祀)의 신 위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목작(木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작(爵)의 재질을 구별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사에 속하는 적전(籍田), 선감(先蠶), 문선왕(文宣王) 제사에서 목작(木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려사에서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작(爵)은 합금동으로 만든 유작(鍮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선왕묘 석전(釋奠)이나 시학(視學)의 헌작에 사용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국가제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작(爵)을 사용하였다. 재질적 측면에서 주로 조롱박, 옥, 나무를 만든 작을 사용하고, 문선왕묘에 한하여 금속으로 제작한 유작(鍮爵)을 사용한 경향을 보인다.<sup>25)</sup>

이에 비해 조선시대 길례용 작(爵)은 대부분 합금동인 놋쇠(鍮)로 제작한 유작(鍮爵)이었다(도11). 『세종실록오례의』가 편찬된 이래 조선시대 국가제 사용 작(爵)은 원칙적으로 유작(鍮爵)이었고, 그 형태와 크기는 조선시대 내내 국가전례서를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정해졌다(도13).<sup>26)</sup> 즉 대사에 속하

24) 『高麗史』 卷59, 古禮大祀 圜丘 親祀儀.

25) 문선왕 제향에서 유작을 사용하는 것은 『宣化博古圖』를 참용한 『紹熙州縣釋奠儀圖』에 기반하고 중국 문묘식 석전제의 제도를 받아들인 결과로 여겨진다.

26) 『세종실록오례의』가 편찬되어 제기제도가 성립되기 전인 세조대에 종묘, 사직용 제기로 유작이 아닌 銀爵을 사용하였다. 『世祖實錄』 卷2, 1455年(世祖1) 9月 6日 戊寅. 조선 건립 초기에 제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사에 銀爵을 사용했던

는 사직정위, 종묘사시급납, 영희전춘추를 비롯해 소사에 이르는 제사까지 모두 합금동으로 만든 유작(鑪爵)을 사용했다. 고려시대에는 유작이 문선왕묘 제향을 위주로 한 일부 제사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작(爵)의 사용문화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시대 거의 모든 정제에서 유작(鑪爵)을 사용한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제도를 구상하면서 송대 주희(朱熹, 1130~1200)가 주현의 문묘 석전제를 위한 제기제도를 위해 편찬한 책인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중요하게 참용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초기 중국으로부터 조선의 제기제도를 반강(頒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상하면서 중요한 자료로써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선택하였고, 이에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린 작과 동일한 모양과 재질을 가진 작이 조선시대 길례용 제기로 채택된 것으로 여겨진다(도14).<sup>27)</sup>

이처럼 고려시대 에는 제사의 대상에 따라 작의 재질을 구분해 다양하게 사용하던 것에 비해 조선은 세종대부터 제천례용 포작(匏爵, 혹은 도작)을 제외하고 길례 정제에서 원칙적으로 유작으로 통일시켜 사용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로써 제사의 위계(대사, 중사, 소사)나 제사 공간(한양, 지방 주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작을 사용하는 제통(諸通)의 유교식 제사를 구현했다. 동시에 제사의 성격에 따라 작(爵)의 개수를 차등하여 유교식 제사들의 위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시켰다. 작(爵)의 재질적 통일성과 사용방식의 위계성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고

---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욱 연구원은 조선시대 왕실 의례용 은기들이 자주 도난당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세조대까지 종묘와 사직에서 은작이 사용되었으나 유작으로 바뀐 이유는 도난 방지에 대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연구자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여겨진다.

- 27) 朱熹 撰, 『紹熙州縣釋奠儀圖』,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臺灣商務印書館, 民國73[1984].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이정은, 『『세종실록』 「제기도설」의 제정 배경과 조선 초기 예제 미술의 형성』,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구혜인, 앞의 논문(2019), 45-52쪽,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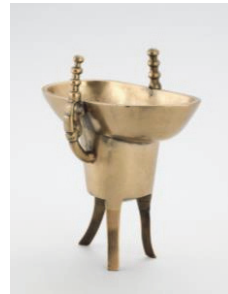
관리되었으며, 전란이 닥치면 종묘와 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서둘러 주조해야 하는 제기로 여겼다.



도11-1 鑪爵,  
高20.6cm,  
국립고궁박물관



도11-2 鑪爵, 高20.6cm,  
국립고궁박물관



도12 鑪爵, 高20.4cm,  
국립고궁박물관

## 2. 길례용 작(爵)의 조형과 의미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길례용 작(爵)의 조형과 재질이 갖는 의미에 살펴보고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국가전례서 속 제기도설은 작(爵)을 제작하는 제도가 되었고, 조선시대 작(爵)의 제도는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린 작(爵)의 제도(재질, 형태, 크기, 문양, 무게) 전거를 둔다.<sup>28)</sup> 물론 조선시대 길례용 작(爵)을 이 제도에 기반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숙련도,

28) 국가전례서 제기도설 중 작의 부분에 참용된 『소희주현석전의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 무게가 1근 8냥이고, 기둥까지 합한 높이는 8치 2푼이고, 깊이는 3치 3푼이다. 아가리의 지름은 긴 쪽이 6치 2푼이고 너비는 2치 9푼이다. 기둥이 2개, 발이 3개이며 수구[流]가 있고 손잡이[鑿]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朱熹 撰, 『紹熙州縣釋奠儀圖』. 그리고 국가전례서에 함께 참용된 『시경』 「예기도설」에는 ‘윗부분에 있는 두 기둥은 마시기를 다하지 않는 뜻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원문을 조선의 국가전례서 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치수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가동, 발, 수구, 손잡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전례서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반면 원문

재료의 공급과 배합, 제작과정에서의 이변 등으로 인해 변형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제기도설의 작(爵)의 제도에 최대한 가깝게 제작하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유작(鑪爵)의 조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족의 발과 넓은 유선형의 구연을 이루는 잔이 함께 붙어있는 형태이다(도11-1). 작(爵)의 구조와 세부 명칭이 국가전례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작의 총 높이(다리부터 기둥까지)는 8촌 2푼, 잔의 깊이는 3촌 3푼, 잔 입구의 최대경은 6촌 2푼, 잔의 입구의 좁은 폭은 2촌 9푼이다. 작(爵)은 잔, 기둥(柱), 술을 따르는 부위[流], 손잡이[扳金, 鑿]로 나뉜다. 이처럼 작(爵)은 다른 기형에 비해 작으면서도 정교한 구조로 제작되었다(도13). 작(爵)은 다른 제기들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길고 가는 세 개의 다리, 속이 깊고 유선형의 구연을 이루는 잔, 두 개의 솜은 기둥장식, 잔의 좁은 표면에 장식된 정교한 장식 등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기물이다.

문양장식의 측면에서 『세종실록오례의』 제기도설에 수록된 작(爵)은 동체 중심에 띠가 둘러져 있고 그 위에 회문(回文)과 와문(渦文)이 군집을 이루며 장식되어 있다(도11-2).<sup>29)</sup> 또 정면에는 손잡이 즉 반금(扳金)이라고 여겨지는 띠가 세로로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구연부에 솜은 양 기둥은 3~4개의 돌대가 있고, 끝 부분은 연봉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sup>30)</sup> 이와 같은 장식요소들을 모두 갖춘 유작(鑪爵)들이 다수 현전하고 있고, 길례 대사부터 소사에

29) 작의 주요 문양은 회곡文이다. 회곡문은 원을 그리는 선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소용돌이문이다. 조선의 제기도설에서는 작의 문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성종대 祭器鑄成都監 提調 盧思愼은 작의 문양에 대해 유작은 예문에 鑪爵은 가운데는 회곡문이 있고 그 외에는 流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종대 유작에는 회곡문과 유문이 없으니 개조하기를 청하는 내용인데, 이 언급을 통해 작의 문양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成宗實錄』 卷9, 成宗22年 1月 8日 辛巳.

30) 『紹熙州縣釋奠儀圖』의 도설 속 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기둥의 장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르는 다양한 국가제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제사용 작(爵) 중 문양이 형태는 전혀 없는 유작(鑪爵)도 존재한다(도12). 현전하는 무문(無紋)의 유작은 조선에서 명(明)의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낸 대보단(大報壇) 제사에 사용된 작(爵)이라고 여겨진다. 16세기 명·청의 교체 이후 조선은 대명의리의 실현과 성리학적 의리명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대표적인 예가 숙종대 대보단을 건설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대보단 제사는 국가전례서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사직단에 준하는 대사급으로 치러졌다. 숙종대 대보단을 세울 때 대보단의 제기를 『대명집례』의 도식에 의거해 제작했고, 영조대 대보단의 제기제도를 도설로써 『황단의』, 『황단증수의』에 수록했다.<sup>31)</sup> 『황단의』, 『황단증수의』에 실린 대보단용 작(爵)을 살펴보면 그 형태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유작(鑪爵)과 거의 동일하지만, 작의 외면에 문양이 전혀 장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32)</sup> 마찬가지로 대보단에 사용되는 보, 궤, 형에도 모두 문양이 없다는 점이 주목되는바, 대보단 제기가 종묘제기와 비교해 기종과 형태가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문양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는 주로 유작(鑪爵)을 사용했으나 한시적으로 거행된 천지제사에서는 포작(匏爵)이나 자작(磁爵)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세종 5년(1423)에 원구단 제사에 쓸 술잔을 포작으로 만들기 위해 봉상시로 하여금 씨를 심어 예비하게 하고 사용한 뒤에는 버리도록 하였다.<sup>33)</sup> 또 세조 3년(1457)의 제천행사를 다시 준비하면서 하늘의 신인 상제(上帝), 해의 신인 대명(大明) 그리고 풍운뇌우(風雲雷雨)에게 포작(匏爵)을 3개 올리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작으로 제작하도록 하여 포작에서 자작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가장 높은

31) 『肅宗實錄』卷40, 肅宗30年 12月 21日 丁亥. 『皇壇儀』, 『皇壇增修』

32) 『皇壇儀』; 『皇壇增修儀』: 구혜인, 앞의 논문(2019), 104~105쪽.

33) 『世宗實錄』卷22, 1423年(世宗5) 10月 27日 甲戌.

위계의 제사에서 포작(匏爵)과 자작(磁爵)을 채택한 것은 그만큼 자연신을 모시는 제사에서 자연의 성질과 가장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질박하고 소박한 재질을 귀하게 여기고 유교철학과 제사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재질의 제기를 사용하려는 유교식 의례방식의 결합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조선의 국가제사서는 유작(鎭爵)을 주로 사용하고, 제천례 등 일부 제사에 국한해 자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흙으로 만든 자작(磁爵)을 사용한 것은 제천례에 국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내내 유작(鎭爵)을 제작하는 물력과 공력이 여윌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국 초기 제기에 한꺼번에 주성하느라 금속 재료가 부족했던 시기와 양란 이후 제기가 산일되어 대규모의 주성이 필요했던 시기에 자기재질의 작으로 유작(鎭爵)을 대신했다(도15). 원래 금속은 채굴하고 가공하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재질인데 비해 흙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수월하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성형이나 문양장식이 비교적 쉬운 소재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제사를 위한 금속제기가 제작되지 못할 경우 금속을 대체해 분청사기나 백자 등 흙을 재료로 한 제기를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작(爵)도 도자기로 제작되었다.<sup>34)</sup>

백자작을 사용한 대표적인 길례 공간 중 전국의 향교와 서원이었다. 공자와 유교선현들에게 제향을 올리는 향교나 서원에서 물력이 넉넉하지 않아 유기제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백자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도16, 도17).<sup>35)</sup> 지방의 도공이 제작한 백자 작은 비록 국가전례서에 정해진 작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지 못해 조형적으로 유작에 미치지 못했다. 또 유작으로 제작하더라도 국가제사용 유작과 비교해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34) 『世宗實錄』 卷49, 世宗12年 8月 6日 甲戌; 『宣祖實錄』 卷180, 宣祖37年 10月 20日 丙寅 외 다수.

35) 예를 들어 청주향교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 일괄(보, 궤, 작) 중에 작 2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출토사례가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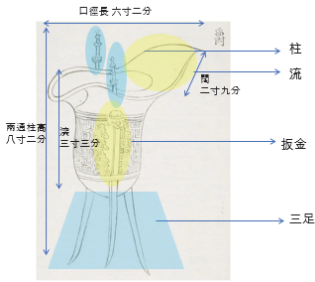
(도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하기 비교적 쉬운 반구형의 ‘잔’으로 대체하지 않고, 양 옆으로 길어진 잔, 세 개의 다리, 두 개의 기둥, 을 갖춘 ‘작(爵)’을 지방 향교와 서원에서조차 최대한 마련하고자 한 점은 그만큼 길례에서 제주를 담는 작의 용도가 중요하고 의례기적 성격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행히 번조를 거친 흙은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선시대 분청사기작이나 백자작들이 다수 현전하고 있다(도15~도17). 유물을 살펴보면 작(爵)에 대한 조형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작(爵)의 특징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도공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도자 재질의 작(爵)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잔, 다리, 기둥의 특징적 요소들은 작(爵)의 원형과 최대한 닮게 제작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더불어 일부 백자작들에는 유작(鑪爵)에 장식된 뇌문을 어설피게 모방해 철화안료 뇌문으로 장식한 경우도 있다(도16). 양란 이후 정제용 제기들 중 일부가 일상기명(발, 대접, 잔)과 유사한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작(爵)도 잔의 기형과 비슷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爵)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옆으로 긴 모양의 잔, 세 개의 다리, 두 개의 기둥)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려고 한 사실은 작(爵)이 갖는 조형적 특징을 중시하고 작을 국가제사에 사용하려고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작(爵)의 바탕이자 중심은 유작(鑪爵)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흙으로 만든 자작(磁爵)의 존재를 통해 재질을 뛰어넘는 제작 문화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도20). 만약 제사마다 제각각 다른 제기를 국가제사의 체계와 권위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한양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국가제사 공간에서 제기를 비롯한 물질적 요소들을 동일하게 갖추려는 의지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작(爵)이라는 작은 기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술잔의 표상(表象) : 작(爵)



도13 작, 『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 제기도설



도14 작,  
『소희주현석전  
의도』



도15 분청사기작,  
조선전기,  
국립중앙박물관



도16 백자철화문작,  
고12.6cm, 양지향교  
제기, 용인 양지 수습,  
조선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17 백자작,  
조선중기,  
국립중앙박물관



도18 유작,  
나주향교 제기,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도19 종묘, 사직, 대보단, 나주향교에서 사용된 유작의 조형 비교



도20 같은 조형과 다른 재질로 제작된 작

#### Ⅳ. 가례용(嘉禮用) 작: 기쁨과 효성의 확산

가례란 나라의 경사와 관련된 의식이다. 가례는 『주례』에 따르면 ‘만민을 친히 하느[以嘉禮親萬民]의식’으로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다.<sup>36)</sup> 나라의 여러 경사 가운데 왕세자가 장가를 가는 국혼과 왕이나 대비의 경사를 기념하고 축수하는 진연에서 작(爵)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장에서는 이에 집중해 살펴보겠다.

##### 1. 왕세자가 사용한 국혼용 금작(金爵)

가례의 대표적인 의식은 왕실 혼례이다. 특히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혼례는 나라의 국통을 이어갈 경사로 여러 절차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중 임헌초계(臨軒醮

36) 예를 들어 『세종실록오례』에서 가례 의주가 45종, 『국조오례의』에서 50종, 『춘관통고』에서 215종 정리되었다. 송지원, 「弘齋正祖의 國家典禮정비와 그 의미」(2009) 연구를 참고할 것.

戒)에 금작(金爵)이 사용되었다(도21).<sup>37)</sup> 임헌초계는 왕세자가 혼인하는 날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임금이 궁전 앞 섬돌 위에 나와서 왕세자에게 혼계하는 일이다. 임금이 조계(阼階)까지 친히 나와 장가드는 왕세자에게 ‘가서 너의 배필을 맞아들여 우리 종사(宗事)를 계승하고 궁인을 엄격하게 거느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제사지낸다는 의미의 ‘醺’자가 포함된 것은 왕세자가 술을 땅에 부은 뒤 술을 마시는 제사의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으로 만든 작, 즉 ‘금작(金爵)’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북을 쳐서 초임을 하면 병조에서 노부반장을 진열하고 종친, 문무백관은 모두 조복을 갖추어 입고 기다리고 궁관은 좌우로 나뉘어 서로 마주한다. 북을 쳐서 이엄을 하면 종친과 문무백관이 모두 문의 위로 나아가고 전하께서 면복을 갖추고서 사정전으로 납신다. 북을 쳐서 삼엄하면, 봉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고 사옹원 관원이 술과 금작(金爵) 및 찬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면복을 갖춘 전하가 여에서 나와 어좌에 오르고 왕세자가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사옹원부제조가 금작(金爵)에 술을 따라 왕세자에게 드리면, 왕세자는 작(爵)을 받아 채주하고 일어나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고 작(爵)을 부제조에게 준 뒤 왕세자는 규를 꺼내들고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이후 봉례가 왕세자를 인도해 어좌 앞에 당도하면 전하께서 명하기를 ‘가서 너의 내상을 맞이하여, 우리의 종사를 잇고, 이끌어서 엄히 하기를 힘쓰라’라고 한다. 왕세자는 ‘신 아무개는 삼가 교지를 받들겠습니다’하고 부복흥사배흥평신하고 점차 해엄과 의장이 정해진대로 진행된다. 이처럼 금작(金爵)은 왕세자가 종사 계승과 내명부를 이끌 왕세자빈을 맞아들이기 위해 껌을 나서는 땅에 술을 부어 고한 후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술잔이었다.<sup>38)</sup>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임헌초계에 금작(金爵)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37) 『國朝五禮儀』 卷4 嘉禮 王世子納嬪儀.

38) 왕세자 冠禮에서도 醴酒를 담은 爵을 두었으며, 이 역시 왕세자 가례의 연장선에서 爵을 사용한 것이다.

사실을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전례서의 가례 준작도설에서는 항상 금작(金爵)으로 실려 있으나, 조선후기 가례도감의궤에는 동도금작이나 도금을 하지 않은 유작(鍮爵)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1802)의 삼방의궤에 실린 납빈의용 작(爵)은 동도금작이다(도22). 작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는데, ‘예기척을 기준으로 원경 4치 8푼, 원경의 너비 2치 3푼, 높이 2치 6푼, 귀의 높이 2치 3푼, 다리 높이 2치 5푼이고, 대는 정방형에 5치 6푼이고, 무게는 1근 11냥이다. 납빈의용 작에는 뇌(雷)문양이 새겨져 있고, 작구(爵口)는 순색으로 하고, 좌우의 귀는 용으로 조각하며 받침대도 황금으로 도금한다.’고 하였다.<sup>39)</sup>

조선시대 길례와 가례에서 모두 작(爵)을 사용하는 점은 서로 상통하지만 길례에는 처음부터 작(爵)을 유동(鍮銅)으로 제작하였고, 가례에는 원래 금이었다가 점차 유동도금(鍮銅鍍金)이나 유동(鍮銅)으로 바꾸는 점이 다르다. 또 크기와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와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재질이 바뀌더라도 작(爵)이라는 기종을 조선시대~대한제국기 내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왕실 혼례에서 작(爵)이란 기종은 다른 기종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의례기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2. 왕실 연향에 사용된 서작(犀爵), 서배(犀杯), 옥작(玉爵)과 효사상

조선후기 왕실 연향과 관련된 의궤들이 현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향용

39) 국가전례서에 기록된 길례용 작의 크기와 비교하면 가례용 작의 크기가 약간 더 무겁다. 예를 들어 길례용 유작의 무게가 1근 8냥, 혼례용 작은 1근 11냥이다. 현재 현전하는 유물 중 금작 혹은 도금동작 등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산일되었다고 여겨진다.

기물에 대한 분석한 선행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sup>40)</sup> 연향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지므로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주기(酒器)들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정조대부터 고종대에 이르는 기간의 연향의례 기용도에 ‘술잔’으로 그려진 기종의 그림은 39건(잔과 잔대의 조합을 고려한 수)에 이른다. 잔의 명칭(잔대 제외)으로 서배, 옥작, 금작, 유작, 금잔, 은잔, 내도금란배 내도금 은배, 은도금대란배, 은소라배, 옥배, 옥도화배, 도금배, 도금선지두배, 은도 금배, 만수배, 은도금만수배, 만호배, 수만호배, 오정배, 은오정배, 유오정배 등이 있다.<sup>41)</sup> 연향에서 주기는 다른 기물(찬기, 다기)에 비해 참여자의 신분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엄격히 구분되어 신분별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이중 서작(犀爵)은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새롭게 등장시킨 작(爵)이다. 서작은 무소뿔을 가공해 만든 잔으로 서배(犀盃)라고도 불렸다 (도23). 조선후기 서작이 등장한 문헌은 『원행음묘정리의궤』 기용도와 『화성 원행의궤도』로, 『원행음묘정리의궤』 기용도에는 목판화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반면 『화성원행의궤도』에는 채색이 가해져 구체적인 실물의 모습을 파악하기 유용하다. 『화성원행의궤도』에 실린 서작은 전체적으로 밝은 회갈 색이며 둘레에 짙은 음영을 주어 잔의 입체감과 부피감을 살렸다. 작(爵)은 잔(盞) 아래에 세 개의 다리가 달려있고 잔(盞)의 가장자리에 U자를 거꾸로 놓은 듯한 2개의 귀가 달려있다. 또 아래에는 옷칠을 한 대를 갖추고 있다. 작(爵)의 형태와 비슷하나 재질이 무소뿔이라는 점과 잔의 가장자리에 올려진 두 귀가 원주형 기둥이 아닌 U자형이라는 점이 다르다.<sup>42)</sup> 이 기물이

40) 연향용 기물에 대한 연구자별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주석1)을 참고.

41) 『園幸乙卯整理儀軌』(1795/『華城園行儀軌圖』);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戊子進爵儀軌』(1828); 『己丑進饌儀軌』(1829);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丁丑進饌儀軌』(1877); 『丁亥進饌儀軌』(1887); 『壬辰進饌儀軌』(1892); 『辛丑進饌儀軌』(1901); 『壬寅進宴儀軌』(1902)

42) 코뿔소가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으므로 주로 유구국이나 일본에서 토산물 마쳤다는 기록이 실록에 다수 등장한다. 서작은 색에 따라 화서각, 오서각 등 다양한 종류가

흥미로운 점은 분명 작(爵)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서작이지만, 의궤에서 주로 ‘서배’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서작이라 이름 대신 서배라는 명칭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작(爵)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배(盃)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왜 갑자기 서작(犀爵)이 등장했을까? 정조대 화성 원행을 앞둔 시점에 정조가 서작을 신료들에게 보이는 장면을 살펴보자. 원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내탕고(內帑庫)에 보관된 무소뿔 잔인 서작(犀爵)을 정리소에 내리며 이르기를, “『시경』에 ‘저 시觥(兕觥)을 들어 축수드리니, 만수무강하리로다.’라고 하였으니, 이 잔이 비록 작으나 내탕고에 보관된 옛 물건이니, 시觥을 대신하여 수주정(壽酒亭)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3)</sup> 이를 통해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원행의궤도』의 서배의 기원은 시觥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경』에서 시觥은 축수하며 만수무강을 바랄 때 사용하는 잔이었다. 따라서 서배가 전형적인 시觥의 형태가 아닐지라고,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정조는 『시경』의 시觥을 서배와 연결지어 어머니를 위한 술잔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즉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원행의궤도』의 도설에 실린 여러 가지 이름, 즉 서작, 서배, 시觥은 모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축수를 드리는 임금의 효성을 담은 의례기라 할 수 있다.<sup>44)</sup>

서배(서작)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사용된다. 현전하는 연향의궤들을 살핀

---

있었고, 관복의 帶 등의 장식품이나 약재로 사용되었다. 서작으로 만든 잔을 서각배, 서배, 서작이라고도 기록되었다. 문종대에 신료에게 宣醴, 香醴, 獐鹿, 柑橘과 함께 서각배를 하사하기도 했다. 『世祖實錄』, 세조1년(1445), 12월 9일 기사.

43) 『詩經』 豳風 十月滌場. ‘시월에는 타작마당 치우고 두어 통 술을 마련해 마을사람 대접하네. 염소와 양을 잡아 어른들 대접하지. 공당에 올라앉아 물소 뿔잔을 들어 술을 권한다네[稱彼兕觥] 부디 萬壽無疆하소서.’

44) 정조는 순조의 관례 때에도 이 서배를 내오도록 한다. 즉 관례 때의 醴爵은 을묘년 奉壽堂 進饌 때 썼던 시觥을 들여다 쓰고, 술향아리는 정미년 가례 때에 썼던 자기 향아리[磁缸]를 쓰고, 三加때의 器皿 등 속은 모두 대내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쓰라고 명하였다. 『正祖實錄』, 正祖24年(1800) 1月 13日.

결과, 현종대부터 고종대까지 ‘서배’라는 명칭을 가진 작이 꾸준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형태는 『원행음료정리의궤』의 서배와 거의 동일하여 같은 기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조대에는 받침으로 옷칠을 한 나무받침을 사용했다면 현종대부터는 壽자문과 박쥐문양이 장식된 은도금 잔대를 받치는 변화를 보인다. 현재 서배로 추정되는 유물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정조가 원행음료 진찬 때 내탕고에서 찾은 이래 서배를 대한제국기까지 왕실 연향에 꾸준히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향용 작(爵)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로 옥작(玉爵)이 있다(도24-2). 순조대의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 옥작이란 기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와 더불어 금작, 유작도 함께 실렸다(도24). 우선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옥작은 일반적인 형태의 작(爵)이 아니라 둥근 반구형의 옥잔이며 세 개의 다리가 달리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옥작은 작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작이라고 부른 점이 독특하며, 순조대에 서배의 위치를 옥작이 잠시 대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23, 도24-2). 이 뿐만 아니라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는 금작(金爵), 유작(鎭爵)이 등장한다(도24-3). 이때의 작(爵)은 앞서 살펴본 옥작(玉爵)과 달리 실제로 작의 형태와 같으며 모두 금점(金玷)과 유점(鎭玷)을 갖추고 있다. 이후 현종대부터 다시 정조대 사용했던 서작을 ‘서배’라는 명칭으로 다시 꾸준히 사용하였다.<sup>45)</sup> 그리고 서배를 사용하는 주인공은 바로 연향의 주인공인 왕대비와 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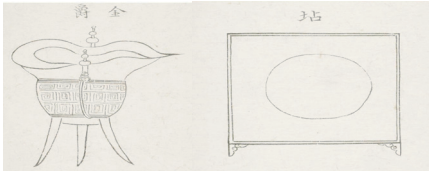
현전하는 자료에 근거해 연향용 작(爵)의 사용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봉수당 진찬에서 혜경궁 홍씨를 위해 아들 정조가 마련한 서배는 현전하는 연향의궤 기용도설 중 가장 이르게 등장하는 서작(犀爵)이면서 어머니의

45)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丁丑進饌儀軌』(1877); 『丁亥進饌儀軌』(1887); 『壬辰進饌儀軌』(1892); 『辛丑進饌儀軌』(1901); 『壬寅進宴儀軌』(1902). 반구형의 잔을 재질별로 나누어 옥작, 금작, 유작으로 부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진표리진작의궤』가 유일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와 명명 방식은 이 의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정조의 효심을 상징한다. 서배의 형태가 작(爵)의 형태와 일치하고 현종~고종대에도 동일한 서배가 꾸준히 사용되었으므로, 서배(서작)은 조선후기 연향용 작(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작(爵)과 조형적으로 일치하는 사례로 본 연향용 작이다. 이 외에 작(爵)의 조형적 요소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이라고 부른 사례로 순조대 옥작이 있다. 기사진표리진작에서 사용된 옥작은 분명 작(爵)이 아니라 잔의 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작이라고 명명하고 매우 공들여 그려 의궤에 실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선시대 가례용 작(爵)의 경우 늦쇠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같은 모양으로 제작해 통일된 국가제사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다면, 가례 중 연향용 작(爵)은 오히려 작(爵)을 사용하는 의례 주인공의 권위를 부각시켜 다른 참여자들과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례용 금작이 조선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편찬된 모든 국가전례서에 실린만큼 가례용 작(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조선후기 연향에서 등장한 서배(서작), 옥작은 효성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함께 등장하여 가례용 작(爵)의 시대별 변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도21 금작, 가례서례, 『세종실록오례의』



도22 銅鍍金爵,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의궤』, 1802, 규장각



도23 서배, 『화성원행의궤 도』 중 기용도, 1795, 국립중앙박물관



도24-1 『기사진표리진작의궤』 기용도, 1809, 국립중앙박물관



도24-2 옥작과 금점, 『기사진표리진작의궤』 기용도, 1809, 국립중앙박물관



도24-3 금작과 금점, 『기사진표리진작의궤』 기용도, 1809, 국립중앙박물관

한편 연향의 진행은 행사의 주인공에게 작(爵)을 올리고 이에 맞춰 음악과 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일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연향에서 주인공에게

술잔을 올리는 횟수에 ‘작’이라는 용어를 결합하여 삼작(三爵), 오작(五爵), 구작(九爵)이라고 부르고, 의궤명 자체를 진작의궤(進爵儀軌)로 붙인 경우도 있다.<sup>46)</sup> 술잔을 올리는 횟수는 많게는 아홉 번까지 이루어져 이를 구작례(九爵禮)라고 칭하였다.<sup>47)</sup> 길례에서는 작의 적은 용량을 강조하고 술을 지나침을 경계했다면, 가례는 술잔을 올리는 횟수를 늘려 술을 올리고 나누는 기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태종대에 여러 신하와 잔치를 하면서 태종은 아홉 번 작(爵)을 받았다. 당시 예조에서 구작(九爵)의 예를 정하여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작(爵)이 작으면 비록 아홉 번을 행하더라도 혹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취하여도 안 되고 취하지 않을 수도 없다.**”하고, 이에 명하여 큰 잔을 만들었다. 이 날에 여러 신하가 모두 취하여서 일어나 춤을 추는 자도 있었다.<sup>48)</sup> 이날 사용된 구작(九爵)은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기둥이 달린 작(爵)을 포함해 여러 술잔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중국의 작(爵)에서 살펴본 협의의 작(爵)과 광의의 작(爵)을 모두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례는 아니지만 빈례에서도 중국사신을 작(爵)으로써 대접했다. 세조대 노산군과 함께 경회루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구작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sup>49)</sup> 구작례는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간 조선사신에게도 동일하게 시행되었다.<sup>50)</sup> 따라서 구작은 당시 극진

46)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戊子進爵儀軌』(1828)

47) 진연 뿐만 아니라 가례인 正朝·冬至·誕生日 등이나 왕실의 행사에서 朝賀할 사안이 있을 경우 賀禮하는 잔치를 베풀고, 이 때 임금·세자·중궁 등에게 아홉 번 술잔을 올리는 구작을 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구작은 술잔을 아홉 번 올린다는 의미로 작(서작, 옥작, 금작, 은작, 유작) 뿐만 아니라 다른 술잔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8) 『太宗實錄』太宗12年 壬辰 1月 1日.

49) 『世祖實錄』世祖1年 乙亥 閏6月 15日 己未.

50) 예를 들어 영조24년(1748) 일본사행단의 일원으로 다녀온 종사관 曹命采의 견문록인 『봉사일본시견록』에 보면 사신이 대판성에서 머물고 연례를 받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은그릇들과 음식이 차려지고大小銀器之屬及饌品之數, 푸른 빛의 참새[靑色之雀]와 금물을 뿌린 붉은 가재[橫鬚酒金]가 올려진 음식상을 앞에 두고 酒醴를 행하였는데

한 예우 차리고 격식있는 연례(宴禮)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구작(九爵)들도 작(爵)을 비롯해 용량이 작은 술잔을 격식을 갖춰 부르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 V. 흥례용(凶禮用) 작: 애통의 잔(盞)에서 공경의 작(爵)으로<sup>51)</sup>

작(爵)은 흥례에도 사용되었다. 왕실의 상장례의 큰 흐름은 ‘국상(國喪)-염습(殮襲, 소요기간:5일)-빈전(殯殿, 5개월)-발인(發靱)/국장(國葬)/반우(返虞, 3~10일)-혼전(魂殿)/산릉상례(山陵喪禮, 22개월)-부묘(附廟)’의 순서이며 약 27개월에 걸쳐 진행된다.<sup>52)</sup> 장기간으로 진행된 상례는 다양한 절차들(염습·소렴·대렴·성복·계반·발인·반우·우제·줄곡·연제·대상·담제)으로 이루어졌고, 이 의식들은 시신을 안장하고 혼을 모셔 사당에 안착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례들이 행해지는 공간은 빈전, 혼전, 산릉으로, 흥례는 공간의 전환이 갖는 의미가 크다.<sup>53)</sup>

빈전, 혼전 그리고 산릉에서는 매일 혹은 중요한 시기마다 전(奠)·상식(上食)·다례(茶禮)·제(祭)를 통해 음식을 올렸다. 이때 찬물을 담은 각종 기명과 제기들이 조성되었는데, 이때 국장용 제기는 그릇이라는 용도 뿐 만 아니라 흥례의 단계적 흐름과 의식의 변화를 물질적으로 반영하는 정교한 장치이기

역시 九爵이었다고 설명해두었다.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1748)

51) 이 장은 발표자의 줄고인 ‘조선후기 국장(國葬)용 제기(祭器)의 조성과정과 성격’(2022)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52)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設行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7쪽.

53) 빈전은 왕이나 왕후가 승하하고 5개월 뒤 발인할 때까지 梓宮을 두는 전각이고,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모시는 전각이며, 산릉은 임금과 왕비의 무덤으로 인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아니한 능을 의미한다.

도 하다. 그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명이 술을 담는 주기(酒器)이며, 그 중에서 잔(盞) 그리고 작(爵) 중 무슨 기명을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의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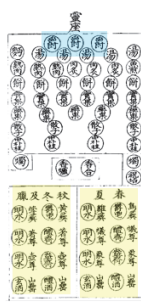
흉례기간의 음식은 시간과 장소의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하는데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시점인 하관(下棺)을 기준으로 전(奠)과 제(祭)로 구분된다. 우선 전(奠)은 사람이 죽은 뒤부터 장례를 치르기 이전까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상중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전을 조석전(朝夕奠)이라 한다. 전 외에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상식은 국상 중 죽은 혼에게 아침과 저녁의 식사 때에 맞춰 올리는 음식이고, 주다례는 낮에 매일 점심에 차를 올리는 의례로, 국상기간 중 아침과 저녁의 상식과 함께 주다례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 즉 27개월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바치는 상식과 차를 올리는 주다례를 통해 망자를 곁에 두고 추모의 감정을 다할 수 있었다.<sup>54)</sup> 전, 상식, 주다례는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전, 상식, 주다례에 올리는 음식은 유밀과, 면, 떡, 탕, 수정과, 청주, 차 등을 올리고, 기명은 은(銀)으로 만든 일상기종(은완, 은잔, 은병, 은함, 은시접, 은다완 등)을사용했다.<sup>55)</sup> 특히 국상부터 발인까지 올리는 전(奠)과 흉례 기간 내내 올리는 상식(上食)에서 술을 담는 술잔으로 오직 은잔(銀盞)을 사용했다(도25). 은잔은 왕실에서 평소에 사용하던 잔으로써 평소대로 망자를 봉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4) 이육, 「조선시대 망자(亡者)를 위한 음식: 국상(國喪)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9, 종교문화비평학회, 2016;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 2008 참고.

55)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일방의궤 품목 은기성상색소용



도25 전에  
신설된 잔,  
삭망전찬도,  
『국조상례  
보편』



도26 우제에  
신설된 작,  
우제찬도,  
『국조상례  
보편』



도27 작, 제기, 우제,  
『국조상례보편』



도28 명기용 백자작,  
높이 4.5 cm,  
정초초장지, 1800,  
국립고궁박물관

홍례절차에서 작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발인 이후에 혼전에서 올리는 첫 우제(虞祭)때 부터이다(도26, 도27). 초우제를 포함한 칠우제, 졸곡제, 연제, 상제, 담제에서도 잔이 아닌 작을 사용했다. 홍례의 제에서 잔(盞)이 아닌 작(爵)을 사용하는 것은 초우제부터 홍례의 성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초우제 이전에는 애(哀)의 감정이 더욱 깊었다면 초우제를 기점으로 경(敬)의 감정이 생겨나 점점 커진다. 애와 경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초우제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우제를 지낼 때 은잔이 아닌 작(爵)을 사용하는 것이다. 작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서히 길례로 향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제때 올리는 찬물로 중박계(中朴桂) 4기, 홍백산자 4기, 약과(藥果) 5기, 실과(實果) 6기, 병(餅) 6기, 어전(魚煎) 1기, 숙육(熟肉) 3기, 육적(肉炙) 2기, 탕(湯) 5기, 면(麪) 1기를 놓아 평소의 상차림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기는 爵 3기를 쓰고, 술향아리는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봄 여름 계절에는 鷄彝(一實明水) 1기, 鳥彝(一實鬱鬯) 1기, 犧尊(二實明水·醴齊) 2기, 象尊(二實明水·盎齊) 2기, 山罍(二實玄酒·醴酒) 2기를 놓고, 가을 겨울에는 罍彝(一實明水) 1기, 黃彝(一實鬱鬯) 1기, 著尊(二實明水·醴齊) 2기, 壺尊(二

實明水·盎齊) 2기, 山壘(二實玄酒醴酒) 2기를 놓는다. 이처럼 왕실의 국상은 절차, 감정, 음식, 제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계속 상호연동하면서 순차적으로 변화하였다.<sup>56)</sup>

흥례에서 때와 절차에 맞춰 잔(盞)을 작(爵)으로 교체하는 일에 대해 편집청 당상인 홍계희(洪啟禧)가 정리하여 보고하는 사례도 확인된다.<sup>57)</sup> 혼전의 속절 및 삭망제에서 잔과 작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일에 대해 편집청 당상 홍계희가 올린 내용을 살펴보면, “『오례의』를 상고해보니 혹은 잔(盞)을 쓰고 혹은 작(爵)을 쓰는 일이 의의가 있을 듯합니다. 우제(虞祭), 졸곡(卒哭), 연제(練祭), 상제(喪祭), 담제(祥祭), 사시제(四時祭)와 납제(臘祭)는 대제(大祭)이기 때문에 길례(吉禮)에 의거해 작(爵)을 썼습니다. 속절(俗節), 삭망제(朔望祭)는 대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뢰(彝罍)를 진설하지 않았고, 또 관폐(灌幣)의 예(禮)가 없으므로 잔(盞)을 썼습니다. 그리고 산릉의 경우에는 삼 년 내에는 잔(盞)을 쓰고 삼 년 후에 비로소 길례에 의거해 작(爵)을 썼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영조가 이르기를 “삭망(朔望)에 잔(盞)을 썼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작(爵)을 쓰라고 명하였던 것인데 이제 『오례의』에 실린 내용을 듣고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차후로 전대향(展大享)에는 작(爵)을 쓰고 삭망 및 속절에는 잔(盞)을 쓰되, 잔(盞)을 쓸 때는 단지 준(尊)만 쓰고 현주(玄酒)는 없애며, 산릉에는 또한 『오례의』의 ‘삼 년 내에는 모두 잔(盞)을 쓰고 삼 년 후에는 작(爵)을 쓴다’는 내용을 따르라고 분부하도록

56) 가족을 잃고 난 후의 슬픈 감정과 상실감을 기간동안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사회의 상장례보다 훨씬 더 기간인 2년 8개월동안 상장례를 치른 전근대사회는 감정변화와 의례절차가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되었다. 다소 도식적으로 보일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묘에 시신을 모시는 발인을 기점으로 참여자들의 감정을 애에서 歎으로 서서히 바뀔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신위를 사당에 모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더욱 경의 감정이 커지게 된다.

57)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5월 혼전의 속절 및 삭망제」, 민속원, 2008, 495~496쪽.

하라”고 하명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영조가 흥례에서 잔(盞)과 작(爵)을 구분하는 의례를 잠시 헷갈렸던 것으로 보이며, 흥계회의 보고를 받은 후 영조는 앞서 삭망의 잔(盞)을 작(爵)으로 바꾸려던 스스로의 판단을 정정했다. 흥례를 치르는 영조가 다른 대제처럼 속제에서도 술잔을 잔에서 작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분은 당시 ‘작(爵)’이 ‘잔(盞)’보다 천지귀신에 대한 공경을 더욱 드러내는 술잔이라고 여긴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왕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조오례의』에 근거해야 하므로 영조의 제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즉 『국조오례의』 흥례조에 근거하여 혼전에서 올리는 제향들 중 우제처럼 정제에 가까운 의례들은 길례에 의거해 작(爵)을 사용하고, 속절과 삭망제처럼 속제에 가까운 의례들은 잔(盞)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술잔은 의례의 성격을 표상하며, 술잔으로써 의례를 구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흥례를 마친 뒤 흥례용 작(爵)은 종묘 신실로 옮겨져 길례용 작(爵)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고, 산릉에서도 삼년상 이후에는 더 이상 잔을 사용하지 않고 작(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잔(盞)과 작(爵)이라는 조그만 술그릇은 흥례의식의 흐름과 성격, 흥례의 마침과 길례의 시작 그리고 후손들의 감정과 태도의 변화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 편찬시기에 성립되어 조선시대 내내 안정적으로 준수되었다.

더불어 흥례에서 작(爵)이 사용되는 또 다른 용도로 명기(明器)가 있다. 왕릉 내부에 길례용 제기(변, 두, 보, 궤, 작)와 속제용 제기(반발, 시접)을 본떠 제작한 소형 명기를 매납했고 그 중 작을 백자명기로 제작한 사례가 현전한다(도28). 이처럼 흥례용 작(爵)은 ‘제’의식에 사용되는 주기으로써 의례의 성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부장됨으로써 망자의 영원한 술잔이 되었다.

##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조선왕실 의례에서 작(爵)은 가례, 길례, 흥례에서 모두 중요하게 사용된 술그릇이었다. 우선 길례용 작(爵)은 조선시대 다양한 국가제사 중 정제에서 사용된 술잔으로써, 국가전례서에 실린 동일한 도설에 기초해 정제에 속하는 제사는 모두 같은 크기와 형태로 제작된 작(爵)을 진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다른 유교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의 통일되고 체계화된 측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 유작(鑪爵)을 대신한 분청사기작과 백자작에서 작(爵)의 조형적 요소(세 개의 다리, 두 개의 기둥/ 세 개로 분할된 굽, 두 개의 부속장식)들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도 조선시대 국가제사를 받치고 있는 제기문화의 일관된 지속성을 보여준다. 길례 중 대사에 속하는 종묘제기의 작(爵)은 흥례의 혼전에서 사용하던 작(爵)을 부묘때 종묘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작(爵)을 통해 흥례와 길례의 연속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흥례에서는 반우부터 거행되는 ‘제(祭)’에서 ‘작(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잔(盞)에서 작(爵)으로의 교체는 점차 흥례가 길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무덤에 부장되는 명기인 백자작은 결국 망자가 지니는 술잔이 되며, 망자는 부묘 이후 조상신이 되면서 종묘 신실에 놓인 유작(鑪爵)으로써 제주를 받게 된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천신, 지기, 인신에 대한 여러 국가 제향에서 가장 존귀한 대상에게 올리는 술잔인 작(爵)을 의기(儀器)로써 활용했고, 중앙과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동(銅)으로 제작한 작을 사용해 국가의례로서의 공통적 면모를 강조했다. 흥례에서도 우제 이후의 중요한 제향에서 작(爵)을 술잔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해 조선시대 천지귀신에 대한 공경이라는 공통된 표상성을 작(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가례용 작(爵)은 길례와 흥례용 작(爵)과 별도의 계통으로 전개되었다. 왕실 혼례에서 왕세자가 세자비를 맞이하는 의식 중 왕의 당부를 듣는 자리인 임헌초계에서 ‘금작(金爵)’은 땅에 술을 붓고 왕세자가 마시는 술잔이다.



금작은 이후 재질이 동(銅)으로 변화하긴 했지만, 국초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모든 국가전례서 속 준작도설에 실렸고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후기 정조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연향용 작(爵)인 서작, 서배, 옥작은 『시경』의 시평에 기초하여 어버이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왕(왕세자)의 효성을 드러내는 술잔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작(爵)은 ‘경(敬)’을 상징하는 술잔이라는 의미가 강화되고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빈례에서도 작(爵)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어, 작(爵)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술잔을 표상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 국가제사에서 사용된 유기재질의 작(爵)들이 여러 박물관에 다수 소장되고 전시되고 있다. 또 종묘, 산릉, 문묘, 서원, 향교에서도 제례의식을 거행하면서 작(爵)을 사용하고 있다. 모두 동일한 조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爵)을 통해 시대별 조형적 양식변화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간단하지만, 만약 의례별 작(爵)의 조형적 특징과 사용문화 및 의미를 확인하고 그 관계망을 연결한다면 ‘작(爵)’을 통해 조선시대 의례문화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유작 이외에 분청사기작, 백자작, 서작, 옥작의 존재와 상호관계를 확인하여 조선시대 작(爵)의 조형양식이 실상 다양하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소재가 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작(爵) 기종의 뿌리는 중국에 있으나 양국 간 서로 다른 제작방식과 사용문화로 전개되었으므로, 이 글이 조선시대 작(爵)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계기로 작계라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사료

『考工記』

『禮記』

『說文』

『詩經』

陳祥道, 『禮書』

聶崇義 『三禮圖集注』

陳元靚 『事林廣記』

『纂圖互注周禮』

『國朝五禮儀序例』

『明集禮』

『皇朝禮器圖式』

『世宗實錄五禮』

『高麗史』

『紹熙州縣釋奠儀圖』

『國朝五禮儀』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1748)

『園幸乙卯整理儀軌』(1795)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戊子進爵儀軌』(1828)

『己丑進饌儀軌』(1829)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丁丑進饌儀軌』(1877)

『丁亥進饌儀軌』(1887)

『壬辰進饌儀軌』(1892)

『辛丑進饌儀軌』(1901)  
『壬寅進宴儀軌』(1902)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丁丑進饌儀軌』(1877)  
『丁亥進饌儀軌』(1887)  
『壬辰進饌儀軌』(1892)  
『辛丑進饌儀軌』(1901)  
『壬寅進宴儀軌』(1902)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戊子進爵儀軌』(1828)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 논문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 『한국문화 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김윤정, 「朝鮮初 酒器 조형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김주하, 「14-16세기 고려-조선시대의 주구발[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송지원, 「弘齋正祖의 國家典禮 정비와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3,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9.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設行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윤희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 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 윤희정,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 윤희정, 「조선시대 사의(射儀)용 의례기 뿔잔 치(觶)의 쓰임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 이아름·이은주,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기물 연구」, 『규장각』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이아름, 「19세기 궁중연향의 진작 과정과 기물 연구」, 안동대학교대학원 융합콘텐츠학 박사학위 논문, 2019.
- 이정은, 「『세종실록』 「제기도설」의 제정 배경과 조선 초기 예제 미술의 형성」,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정희정,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 윤희정,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 최연우, 「조선시대 왕실 혼례용 잔杯 연구」, 『국학연구』 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이욱, 「조선시대 망자(亡者)를 위한 음식: 국상(國喪)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9, 종교문화비평학회, 2016.
- 이욱,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 2008.
- 吳曉筠, 「爵與雀一 從本院新入藏西周斗形爵談起」, 『故宮文物月刊』 450, 故宮博物院, 2020.

王光堯, 「清代瓷質祭禮器略論」, 『古代陶瓷』 第2期, 忿第106期, 故宫博物院, 2003.

朱廣宇, 「論中國古代禮器與祭器發展中藝術設計思想的轉變」, 『藝術百家』, 東南大學藝術學院, 2006.

### 검색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 검색일 2024.01.15.

디지털 장서각 데이터베이스(<http://jsg.aks.ac.kr>) 검색일 2024.02.20.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검색일 2024.03.20.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검색일 2024.03.30.

첨부표 『皇朝禮器圖式』의 제사별 제기 재질과 자기 색

제사		匏爵	玉爵	陶爵	金爵	銅爵	琖
天壇	正位	3					
	配位五壇	各3					
	從壇四位 東西一壇			各3/ 靑			各20
	從壇四位 東西二壇			各3			各30
祈穀壇	正位	3					
	配位五壇	各3					
地壇	正位	3					
	配位五壇	各3					
	從位四壇			各3/ 黃			
社稷壇	正位二壇		各1	各2			
	配位二壇			各3			
朝日壇				3/紅			30
夕月壇	正位			3/月 白			30
	配位			3			30
先農壇				3			30
先蠶壇				3			30
天神壇四案				共12			
地祇壇七案				共71			
太歲壇	正位			3			30
	兩廡四案			各3			各30
太廟	正殿五筵		共45				
	後殿四筵		各6				
	兩廡 東廡五案			各3			
	兩廡 西廡九案			各3			
奉先殿五筵					共48		
文廟	正位					3	
	配位四案					3	
	十二哲					3	

조선시대 국가의례용 술잔의 표상(表象) : 작(爵)

	兩廡六十二案					123	
崇聖祠	正位五案					各3	
	配位四案					各3	
	兩廡三案					5	
傳心殿	正位九案					各3	
	配位二案					各3	
帝王廟	正位六案					各3	
	兩廡十二案					237	
先醫廟	三案					各3	
	配位二案					各6	
	兩廡六案					6	
關帝廟	前殿					3	
	後殿三案					各3	
都城皇廟						3	
內城皇廟						3	
永佑廟						3	
天下第一泉龍王墓						3	
昭靈沛澤龍王廟						3	

SYMBOL OF DRINKING VESSEL FOR NATIONAL RITU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JAK (爵)

KOO HYEIN (KOO, HYE IN)

This article analyzes the types, shapes, and meanings of the Jak (爵) used as drinking vessels in ritual ceremon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First, the Joseon Dynasty's ritual drinking vessels were used in various state ceremonies. Based on the national ritual books, The principle was to make the same size and shape of the Jak made of alloyed copper and use it for the ritual. In addition, Buncheongsagi Jak and white porcelain Jak were produced in place of the alloy copper Jak, and the same sculptural elements of the alloy copper Jak were kept unchanged. This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shape of the Jak in Joseon rituals. Secondly, the 'Jak' used for mourning ceremonies was transferred to the Jongmyo at the end of the funeral and transformed into the Jak of the Jongmyo ceremony. The transformation of the funeral vessel into an ancestral shrine's vessel shows the continuous nature of the ritual process. The use of 'Jak' in the ceremonial rituals, starting with the Banwu, and the change from the cup to the Jak, indicates that the mourning funeral rituals were gradually closer to the ancestral shrine's rituals through the small objects called Jak. The Jak used in the royal wedding ceremony was a drinking vessel made of gold for pouring alcohol into the ground by the crown prince while



listening to the king's virtue speech. The golden Jak was listed in all the national ritual books compiled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as part of Junjackdosul. On the other hand, Seojak, Seobae, and Okjak, which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used as drinking vessels to pray for the long life of the king and queen and to show the filial piety. In addition to this, there were also instances of the use of jack in rituals to welcome guests, so Jak represented the drinking vessel for state ceremonies in the Joseon Dynasty, and its representation was strengthened towards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Jak (爵), Joseon, ritual vessel, drinking cup, ancestral shrine, banquet, Funerals, abstinence from alcohol, filial piety